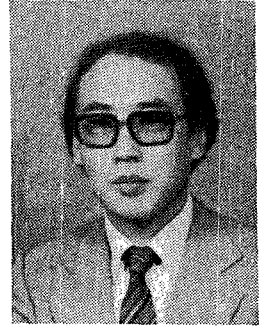


環境保全을 위한 理想과 現實의 片鱗



朴 昌 根
<(社) 環境教育會 委員長>

1. 生態圈의 작은 부속 한 個

“센트럴 파아크 위에서
즐고있는 숲 주정뱅이,
어두운 정글 속의
사자 사냥꾼,
중국의 치과 의사님,
영국의 여왕님—
모두 함께
같은 기계에 끼어 있네.
멋지지 않은가.
정말 멋져.
멋지지 않은가—
그토록 많은 다른 인간이
같은 기계장치 속에 있다니.

콜트·포벳트2세의 詩
「교양이의 요람」

1958年 4月 LaMont C. Cole 博士는
<Scientific American> 誌에 「生態圈」이라는
말을 처음 썼다.

當時로서는 매우 생소한 單語로서, 이 말이 주
는 깊은 뜻을 사람들은 잘 파악하지 못했다.

Cole 博士가 「生態圈」을 뜻한 것은 “생각할
수 있는 最大의 生態系, 즉 地球上의 모든 生物
과 地球上의 環境과 地球上의 全資源의 總體”였
다.

Cole 博士가 이 말을 만든 것은, 하나의 機能
的인 實體, 無機環境도 포함한 그 무수한 相互依

存的인 構成要素가, 어느 정도는 光合成이나 호
흡 기타 動植物의 基本적 代謝活動에 의해 결부
되어 있는 하나의 통합을 指示하고 記載할 수 있
기 때문이었다.

그와 같은 機能的인 통합을 가진 것에서는 어
떤 것에서나 그것의 構成要素中の 어느 하나에
일어난 큰 變化의 영향을 따로 분리하여 조정하
기란 불가능하며, 그 系 전체를 다시 編成해야만
機能을 회복하게 된다.

비근한 例로 時計를 생각할 수 있다. 時計의
뒷 뚜껑을 열고, 아무 부속이나 한개를 빼어 보
라. 時計는 금새 作動을 멈출 것이다. 수 십개의
톱니바퀴, 수 십개의 나사 그리고 수 십개의 부
속품으로 이루어진 時計라는 總體가 대단치 않
아 보이는 작은 부속이라는 機能 하나 때문에 그
總體 자체의 機能을 상실하고 만 것이다. 이와같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地球의 生態圈은 수천
억만개의 독립된 機能(인간은 물론, 공기와 물
그리고 풀 한포기와 돌맹이 하나에 이르기 까지)
이 하나의 集合된 總體를 이루고 있는 오묘한 調
和인 것이다.

2. 빠른 速度의 環境變化

이 調和가 흔들리고 있다. 즉 生態圈에 인간의
무리한 충격(工業化나 開發 등)이 加해지면서,
우리의 環境이 變해 가고 있는 것이다.

變化하는 環境에 대한 適應力은, 인간처럼 放
浪性이며, 호기심이 강한 生物에게 있어서는 어
찌면, 有利한 特性이 된다(이 變化가 自然的인

것이 아닌, 人工的인 것일 때에는 이 特性은 生命을 빼앗아 가는 함정이 된다). 이 성질 때문에 生活環境이 惡化되어도 그대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 결과 環境의 質을 유지하는 피이드백의 붕괴를 야기시키게 된다.

이에 대해, Francis N. Ratcliffe 博士는 「Australian Quarterly」誌에서 “環境保全論者가 걱정하고 있는 變化는 歷史的·타임스케일로 보면, 두려울 정도로 빠른 것이지만, 일반 대중에게 있어서는 깨닫지 못할 속도”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環境保全論者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環境變化의 규모와 본질을 일반 대중들에게 보다 구체적으로 경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즉, 지금 진행되고 있는 環境의 變化가 비록 느리게 보일지라도 그로 인한 環境의 質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惡化된다는 사실, 그리고 人間은 현재의 環境에 적응할 수 있도록 生理的, 精神的 機能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環境이 變하면, 적응할 수 없다는 사실 등을 경고해야 한다.

3. 自然을 잃어버린 現代人

무엇이 環境을 變化시키고 있는가?

그것은 흔히 말하는 人口增加일 수도, 産業發展일 수도, 都市化일 수도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人間을 生態學的으로 評價하지 못했던 것, 즉 自然과의 유리에 있다.

人間은 自然環境에 적응하도록 進化해 온 것으로서 다른 生物과 마찬가지로 自然 없이는 生存할 수 없는 存在임을 먼저 認識해야 한다. 따라서 草木이나 動物을 支配할 수 있다는 「萬物의 靈長」觀은 잘못이며, 다른 生物과 같이 自然의 질서를 지키고, 自然을 숭배해야 한다.

自然界에 대한 숭배의 念은, 人間性的의 최초의 한 징후였고, 古代社會의 특징이었다.

舊石器時代와 新石器時代를 통하여 이 태도는 성행하였고, 그것에 이어 地中海과 中近東의 위대한 여러 文明의 核心을 이루었다. 로마에 征服되기 이전의 그리스에서는, 土地는 영혼이 있고 살아있는 것이었다.

모든 흐름과 山들은 人格化되고, 근방의 사람들에 의해 숭앙되고 있었다.

그러나, 人間과 唯一神 사이의 특별한 관계라는 유태-그리스도敎의 발흥이 自然에 대한 존경의 念을 거의 파괴해 버렸다. 그리고 이에 의해서, 今世紀에 이르러 극단에 달하지 않았나 생각되는 世界的인 生態學的의 危機의 舞臺가 마련되었던 것이다.

4. 進歩란 이름의 惡

西歐文明의 주요 테마는 「進歩」(現代까지 두드러지게 神聖不可侵이었던 概念)라는 말로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進歩」에 따르는 한가지 까다로운 점은 生態圈에 대한 영향은 차치하고, 逆說的으로 그 動物的인 어리석음에 있다. 「進歩」라는 變化의 흥분속에는, 人類의 유니크한 能力(未來를 위해 치밀한 計劃을 세우는 일)을 발휘할 시간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

「進歩」는 目的과 意義에 대한 自由로운 思索을 방해한다. 가장 直接的이고 物質的인 意味 이외에는 “우리는 무엇을 바라고 있는 것인가?”라는 人間的 질문을 할 여유도 없다. 그러나 지금이야말로 이 질문은 던져져야 한다. 그리고 분명한 대답이 나와야 한다.

이미, 너무 늦은 것이 아니라면, 國家的으로나, 國際的으로나 아니 世界의 모든 人類는 “좋은(쾌적한) 生活이란 무엇인가?”를 定義내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理想을 이 地球가 영원히 수용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자리에 맞추어 놓아야 한다.

“좋은(쾌적한) 生活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하기 앞서, 우선적으로 널리 퍼져있는 西歐의 倫理를 評價해 보자... 린·화이트 2세는 이 問題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 개인으로서는 다만 이 문제에 보다 많은 과학과, 보다 많은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비참한 생태학적 파멸을 피할 수 있을까 하고 의심을 품는다.

...현대과학과 현대기술은 모두 自然에 대한

正統 그리스도敎의 오만으로 몹시 汚染되어 있으므로, 그것만으로는 우리의 생태학적 위기에 대한 해결을 기대할 수 없다. 우리의 트러블의 근원은 거의가 종교적인 것이므로 구제방법도 또 本質적으로는, 종교적인 것임에 틀림없다.

우리는 우리의 本性, 자연과 운명을 다시 생각하고, 다시 느끼지 않으면 안된다. 자연의 모든 부분에 정신적 자율성을 보는 초기 프란시스스코派的 상당히 종교적이지만 異敎的인 意識은 하나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좋은(쾌적한) 생활”을 이루는 가장 적절한 나라들은 시니컬하게도 우리가 「低開發國」으로 여기고 있는 나라들이다. 즉 빈곤한 나라들은 科學技術이 그들을 支配하기 前에 그것을 制御할 기회가 아직은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도, 인도네시아 등을 비롯한 아시아의 여러 國家들은 人間에게 自由·平和와 共存하는 것을 가르치는 文化的, 宗教的 전통의 흔적을 아직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先進工業國이라고 하는 여러 나라, 그 중에서도 美國은 이 地球上의 모든 人類를 위해, 어떤 결정적인 용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적어도 그들이 이룩한 富는, 低開發國의 빈곤을 위해 配分되어야 한다.

「進歩」라는 西歐的 理想을 정당화할 유일한 이유는, 그것이 人間の 安樂과 福祉를 촉진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1世紀의 進歩의 결과를 냉정하게 바라보면, 거의 모든 사람이 不安하고, 孤獨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手段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目的이었던 科學技術은 人間을 지나치게 自然으로부터 멀리 해 버렸고, 그렇게 함으로써, 人間을 그 自身으로부터 멀리 떼어 놓아 버렸다.

生態學的 危機가 만일 없었다고 하더라도, 環境保全에는 아직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있다. 人間은 自然의 一部分인 것, 그리고 人間은 自然을 享有하는 것을 지금까지 알고있는 사람들을 위해, 또 人類의 세습 재산을 파괴하지 않고, 科學技術의 이용을 배울 未來의 우리 후손들을 위해,

環境은 어떤 경우에서도 保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5. 정말, 작은 것이 아름답다

오늘 날, “좋은(쾌적한) 생활”이라는 理想은 단순히 풍요하고, 편하며, 좋은 것만을 추구하는 生活로 전락했다. 따라서 좋기만함(?) 生活을 위해서 生産이라는 수단이 동원되었고 보다 더 좋은, 더 편한 그리고 더 풍요한 목적을 위해 달리고 있다.

생활 수준을 높이기 위한 生産. 생활 수준은 어디까지 올라가야 멈추는 것일까? 아마 한계가 없이 얼마든지 올라가기만을 바랄 것이다. 따라서 環境의 變化는 계속되며, 앞으로 더욱 加速化할 것이다.

佛敎 經典에 〈如等比丘 當知 多欲之人 外求利故 苦惱亦多, 少欲之人 無求無欲 則無此患〉이라는 말이 있다. 풀이하면 “...이것을 알아 두어라, 欲心이 많은 사람은 利益을 추구하려는 것도 많으므로, 고민 또한 많은 것이다. 그러나 欲心이 적은 사람은 아무것도 求하지 않고, 아무것도 欲心나지 않으므로, 그런 번민은 없을 것이다.”

이 가르침은 매우 당연하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現代人들은 이와 정반대의 길을 택하고 있다. <내것, 더 좋은것, 더 편한것, 더 많은 내것>만을 위해 血眼이 되고 있다. 그래서 6月들어 都下 新聞紙上에는 늘어나기만 하는 「旅館」인지 「女館」을 개탄하고, 會員卷 機百萬元짜리 「사우나·안마시술소」라는게 脫線의 온상이며, 純益을 한달에 6천만원까지 올리는 「룸·살롱」이 있다느니 하는 어처구니 없는 記事가 연일 大書 特筆 되고 있다.

어찌자는 것이냐? <단 하나뿐인 지구, 한 모퉁이에 외롭게 서 있는, 단 하나뿐인 우리의 조국>을 이렇게 신나게(?) 쓰고, 버리겠다는 것인가?

작은 것이 아름답다. 생산도 작게, 소비도 작게, 그리고 생각도 작게해야 한다. 그리하여 덜 좋은것, 좀 불편한 것을 택할 줄 아는 마지막 人間の 예지가 지금 이 순간에 필요한 것이다. *